

■ 겨레의 창

송례문과 함께 복원되어야 할 우리말과 얼

_ 김한기 /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대표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 예측치 못한 사고로 송례문(남대문)이 불에 타 붕괴되었다. 600년을 넘어 그 자리에 서 있던 송례문이 이처럼 대화재로 소실된 것은 그간의 송례문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화재가 사람의 손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 일어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나 소실이나 멸실이라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방송뉴스를 보자마자 카메라를 챙겨 들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초기 화재는 좀 심하게 타는 듯 보였지만 수많은 소방차와 관련공무원들이 분주히 불끄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근처에는 임시 통제본부같은 천막도 생기고 내가 아는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얼굴에서 조기에 불을 끌 것이라는 안도감보다는 누군가를 책임하는 기색이 역력하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표정도 더러 보였다. 그러는 사이 계속 연기만 나던 건물에 갑자기 불꽃이 성해짐을 볼 수 있었고 소방대원 등이 다급하게 장비들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을 상징하는 서울의 대문이, 아니 세계에 대한 한국의 역사와 저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이 거대한 불꽃 속에 갈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타올라갔다.

결국 최첨단의 진화장비를 총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불에 타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붕괴해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내려앉자마자 마치 이제까지의 거친 삶을 마감하듯 조용히 잔 연기만을 내뿜은 채 주위마저 조용해졌다.

지난 5월 4일, 5년여의 복구 작업 끝에 복구공사 완료 및 개장식을 가졌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되었지만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이 이처럼 쉽지 않고 한번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무릇 문화이든 건축물이든 한 번 잃으면 그것을 되찾거나 회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그것이 무형이거나 시대적 조류에 민감한 것이면 더욱 그러하다. 나는 오래된 건축 용어를 몇 차례 조사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써 낸 일이 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말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말이 사라지면 실체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나 말이 살아있으면 실체가 사라져도 언젠가 그 실체를 복원해 낼 수 있다.

송례문 복원과정에서 이 같은 것을 입증해주는 일도 나타났다. 지난 1961년에 전면해체 수리 때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청사진 도면이 이 공사에 참여했던 한 늙은 목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50여 년 전의 건축물의 자세한 모습이 이 청사진 도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건축물의 오래된 용어를 찾아내기 위하여 늙은 목수를 따라다니며 채록을 했고 그 늙은 목수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말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니 같은 건축의 부재에도 지역에 따라 사용 용어가 다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지역의 연장과 자재, 그리고 공법에 따라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쓰기도 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목수는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공사를 해왔고 그 용어를 써 왔다. 그리고 그 스승의 스승, 역시 같은 과정을 밟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건축의 양식과 기법,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자자손손 내려오듯이 전해져 왔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용해 목수의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 수 있었고 그 계보 속에는 독특한 용어들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용어들이야말로 건축물의 양식과 형태, 기법과 공정, 그에 사용되는 자재와 연장들까지 전승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송례문의 복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고 또 그렇게 적용했다. 50년 전에 참여했던 늙은 목수를 불러와 그때 하였던 기법으로 재현하게 했다. 50여 년 전에는 스무 살 남짓 청년이었던 늙은 목수는 어찌나 머로 보았던 전통적인 기법과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정신과 얼을 오늘에 되살려 송례문 복원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그 되살리는 작업은 다만 형태나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옛 말들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문물이 바뀌면서 우리의 앞 세대들이 사용했던 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그 중 사라지는 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우리가 옛 문물을 보존하여 역사적 증거물로 남기고 그것들 위에서 새로운 문물을 창조하듯 우리말과 글을 남기고 기록하여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

후대는 이미 사라진 문물이라도 그 남아 있는 말을 통해 그 문물을 복원하고 재현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물이 사라져도 말이 남아있으면 그 문물은 언젠고 복원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어의 보존은 더욱 큰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지역은 그 지역의 가치와 차이를 나타내며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같은 종류의 건축물도 지역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처럼…….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북말 북남말 · 겨레말 기고 · 겨레말 소식

■ 우리말 돋보기

백석(1912~1995) 시어 몇 가지 (2)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백석 시에 관한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초간본으로 엮은 시집, 정본 작업을 하여 엮은 시집, 초간본과 정본을 함께 보인 시집, 여기에 시어 풀이를 붙인 시집, 또 시어 풀이에 해설을 더한 시집 등이 있다. 작품만 모아놓은 시 전집보다는 시어 풀이나 해설을 더해 놓은 시 전집이 시를 이해하는 데 단연 도움을 준다.

원본(초간본) 또는 정본으로 알려진 백석 시집들에서 ‘다시 짚어보는 시어’의 두 번째 글이다. 원본(초간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일부 현행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보미기로 한다.

[참고한 백석 시에 관한 문헌]

이동순 : 백석 시전집(부록: 낱말 풀이), 창비, 1987.
 김학동 : 백석 전집, 새문사, 1990.
 송준 : 백석 시전집(부록: 시어 사전 외), 학영사, 1995.
 김재용 엮음 : (증보판) 백석 전집, 실천문학, 2007.
 고희진 :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2006.
 고희진 엮음 :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이승원 : 백석을 만나다 ---백석 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백석 시 <정문촌(旌門村)>(사슴, 1936. 1. 20.)에서 몇 어휘를 보기로 한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주홍칠이 날은 旌門(정문)이 하나 마을 어구에 있었다

‘孝子盧迪之之旌門(효자노적지정문)---문지가 겹겹이 얹은 木刻(목각)의 額(액)에 나는 열 살이 넘도록 갈지자(자) 돌을 웃었다

마카시야꽃의 향기가 가득하니 꿀벌들이 많이 날어드는 아침
 구신은 없고 부형이가 담벽을 띠종고 죽었다

기왓골에 배암이 푸르스름히 빛난 달밤이 있었다
 아이들은 족제피같이 먼길을 돌았다

旌門집 가난이는 열다섯에
 늙은 말군한테 시집을 갖겼다

‘정문(旌門)’은 홍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이다.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정문촌’은 그런 정문이 있는 마을, ‘정문집’은 정문이 세워진 집, 여기서는 귀신이 나올 듯한 목은 옛 기와집이다. ‘액(額)’은 액자 또는 현판을 말한다.

이 시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그다지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없어 보인다. 문지(문지), 날어드는(날아드는), 아침(아침), 구신(귀신), 부형이(부영이), 말군(말꾼) 등은 비표준어일지라도 잘 아는 말들이다.

‘띠종고’, ‘족제피’가 좀 낯설지만 ‘띠종고’는 문맥으로 보아 ‘들이밭고’로, ‘족제피’는 ‘족제비’로, 또 ‘가난이’는 여자 아이 아무개쯤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는 ‘돌을 웃었다’와 ‘시집을 갖겼다’의 표현에 생각이 머무를 듯도 싶다.

~을 웃었다

‘孝子盧迪之之旌門(효자노적지정문)---문지가 겹겹이 얹은 木刻(목각)의 額(액)에 나는 열 살이 넘도록 갈지자(자) 돌을 웃었다

소년 백석은 이 정문집 액자(현판)에 ‘효자 노적지의 정문’을 이르는 한문 글귀에 갈지자 돌이 겹쳐 ‘之(지)’로 쓰인 것이 무스웠다. 이를 백석은 “갈지자 돌이 무스웠다”라 하지 않고, “갈지자 돌을 웃었다”라 했다.

“갈지자 돌이 무스웠다” 하면 그 돌이 이상했다[형용사]는 말이며, “갈지자 돌을 웃었다” 하면 그 돌을 비웃었다[타동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석이 “갈지자 돌을 웃었다” 한 표현은 비웃은 게 아니고 ‘무슨게나 이상하게 생각했다’의 뜻으로 쓰였다. 기존 국어사전에 ‘웃다’의 타동사 뜻갈래에 이런 뜻이 없다.

띠종고

‘띠종고’의 기본형은 ‘띠종다’, 평안 등지의 지역어로 보인다. 방언 문헌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백석 시를 연구한 이들은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띠종고 : 치조고, 위를 향해 조고, <고형진>
 : 들이조고, 밖에서 안으로 조고, <이승원>
띠종다 : 치조다. 뽀족한 부리로 위를 향해 잇따라 쳐서 찍다, <이동순>
띠종다 : 부리로 마구 조는 행위를 나타냄, <송준>

“부형이(부영이)가 담벽을 띠종고 죽었다” 했는데, 부형이가 왜 담벽을 푹푹 쪼다가 죽었을까?
 ‘쪼다’는 ‘쪼다’의 평안도, 황해도 말로 전한다. ‘쪼다’를 북의 문화어로는 ‘쪼다(쪼으니, 쪼아)’라 한다.

*석수쟁미(석수)가 돌을 쪼다(쪼다), 병마리(병마리)가 멍미(모미)를 쪼아(쪼아) 먹다,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1주 괄호 안의 표기는 필자가, 이하, 마찬가지로.
 *안마당에서 닭이 부리로 모미를 쪼느라(쪼느라) 한창 부산했다, <장편소설 : 갑오농민전쟁>(조선말대사전)

‘띠종다’는 ‘마구 쪼다(쪼다)’의 뜻으로 ‘뒤쪼다(뒤쪼으니, 뒤쪼아)’에 해당할 듯 한데 북의 사전에 ‘뒤쪼다’가 없다.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부터 ‘함부로 마구 쪼다(쪼다)’에 해당하는 말로 ‘쪼쪼다(쪼쪼으니, 쪼쪼아)’를 올리고 예문으로 “벽에 머리를 쪼쪼다.”를 보였다. 또 소설 문장에서 비슷한 용례를 볼 수 있다.

- ① *“시-적” 하는 쾩쾩한 소리에 뒤미쳐 갈구리(갈고리)로 나무를 쪼쪼는 것 같은 소리가 딱딱 울린다, <김복향: 떠나는 날 밤>(북, 1959)
 *그들은 돌맹이를 하나씩 들고 바윗돌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굴껍데기를 쪼쪼었다, <유주현: 6인공화국>
 ② *가슴이 텅 비고 괜히 서글퍼지면서 영영 소리내며(소리내며) 울고 싶었고 벽에다 머리를 쪼쪼고 싶었고 살점을 마구 뜯어내고 싶었다, <허련순: 외로운 땅>(연변, 1998)
 *나장을 시냇물에 차넣고 높은 놈의 상투를 잡아 채었다, (종락), 대갈통을 바위에 쪼쪼아 시냇물에 휘젓다가 쳐들었다, <김성환: 이마> 1주 김성환(1919~)은 함남 풍산 출생임.
 *그 바람에 옆에 있던 광응배는 운전칸 천장에 머리를 쪼쪼으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리기형: 수송길>(북, 1977)
 *미모의 처녀 교원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그와 동시에 얼굴에 덩달아 굽혀진 것도 최삼철 교원의 허리였다. 하마터면(하마터면) 들은 이마를 쪼쪼을 뻔하였다, <리원길: 착각의 미감>(연변, 2000)

위 인용문 ①은 뽀족한 것으로 마구 쳐서 찍는 행동이며, ②는 머리, 이마를 ‘마구 또는 세계 찧거나 들이받는’ 행동으로 보인다. 북남말 ‘쪼다’에 닭이 모미를 쪼아서 먹거나,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는 행동 외에 ‘머리나 이마를 찧거나 들이받는’ 행동이 포함되는 듯 하다.

백석 시의 “부형이(부영이)가 담벽을 띠종고 죽었다”의 ‘띠종고’를 ‘쪼쪼고=쪼쪼고’로 보아 ‘마구 들이받고’에 해당하는 말로 볼 수 있겠다. 평안도 지역어에 ‘치다’를 ‘디다’, ‘찌다’를 ‘띠다’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가난이 / 갖겼다

旌門집 가난이는 열다섯에
 늙은 말군한테 시집을 갖겼다

‘가난이’를 송준(1995)은 ‘말말을 지칭하는 말’이라 했다. 혹 ‘가난한 이’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이 ‘가난이’는 지난날의 여자 이름의 한 가지인 ‘간난이/갓난이’와 같은 말로 보인다. 소설에서 몇 문장을 인용해 본다.

- *잡혀있던 동리 새나이는 무사 백방이 되어 나와서 **간난이**와 혼인을 하고 **간난이** 병도 가를 하늘같이 말 강게 낫고, … <송영: 아버지>(동아출판사, 1995/1936)
 *이들 후에 인원으로 내려온 **간난이**와 선비는 우선 **간난이**가 공장에서 사귀 어떤 동무 집에서 유하게 되었다, <강경애: 인간문제>
 *이반에는 올해 일곱 살밖에 아니 된 **갓난이**란 계집애가, 반은 선생에게 떠들썩해서 무대 한복판으로 나왔다, <심훈: 상록수>
 *손녀가 태어났을 때 홍씨는 손자가 아닌 게 섭섭해 영감에게 이름을 지어달란 부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갓난이**라고 불렀었다, <박완서: 미망>

‘시집을 갖겼다’의 ‘갖겼다’는 ‘갓겼다’로 적어야 바를 듯 하다. ‘-것다’는 미루어서 인정하거나 확인함을 나타내는 예스러운 표현에 쓰이는 맺음글(종결어미)이다. 이 시의 화자는 열다섯 살 가난이가 가엾게도 늙은 말군한테 시집간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것다’는 ‘추측’, ‘의지’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다’와는 차이가 있다. 비슷하게 쓰이는 ‘-렸다’도 ‘-렸다가’ 아니다. 몇 예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너, 정말 그랬^다. *틀림없는 그 사람이^다.
 *머사또가 춘향 모를 숙여 부르는디(는데), 꼭 이렇게 부르^다. “미로너라(미리 오너라), 미로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정정렬 판: 춘향가>

- *웃이 좀 크^다. *사실이 그러하^다.
 *머지안허(머지 않아) 겨울은 또 오^다. <김유정: 만무방>.
 *단풍때라 한참 좋^다. <염상섭: 이심>
 *신작으로 나서 필연코 강릉이나 서울로 갔^다. <이효석: 산행>

(다음에 계속)

백석(1912~1995) 시어 몇 가지 (1) 보기 >

■ 뜻풀이 깊고 더하기

늦마바람과 갈마바람

_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취부 부장

집 떠난 아들 며느리 걱정에 셋바람, {갈마바람} 가릴 것 없이 심사가 오뉴월 발독에 쌓가시 얹히
듯 뒤숭숭하였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여느 때라면 이미 {갈마바람으로} 늘 음습한 대기가 온 도시를 찌득하게 만들고, 하늘을 반 마장
이나 내려앉게 했을 것이었다. 《채희운: 안개의 상》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과 채희운의 《안개의 상》에 나타나는 '갈마바람'은 '늦마바람'과 같은 말
이다. 두 바람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갈마바람 [명] 뱃사람들의 말로, '남서풍'을 이르는 말.

늦마바람 [명] [북] '갈마바람'의 북한어.

《조선말대사전》

갈마바람 [명] 배사람들이 '서남풍'을 이르는 말.

늦마바람 [명] =갈마바람.

《조선말대사전》에서 '갈마바람'을 '서남풍'으로 풀이한 것은 '갈마바람'을 [갈(西)+마(南)+바람
(風)]과 같이 분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갈마바람'의 뜻풀이를 '남서풍'에서 '서남풍'으로 수정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갈마바람 [명] 뱃사람들의 말로, '서남풍'을 이르는 말.

'갈마바람'의 '갈마'는 [갈(西)+마(南)]와 같이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마파
람]이 [마+ (南)+바람(風)]과 같이 분석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갈마바람'은 '갈마파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단어 결합 방식이다. 따라서 '갈마바람'의 '갈마'는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
다. '갈마바람'과 같은 말인 '늦마바람'의 '늦마'가 [늦--+마(장마)]와 같이 분석되는 것처럼 '갈마바
람'의 '갈마'는 [갈(<가을(秋))+마(장마)]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대로라면 '갈마바
람'의 '갈마'는 '서남'을 나타내는 '방위가 아니라 '가을장마'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갈마바람'과 '늦마바람'을 동의어로 풀이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갈마바람'과 '늦마바람'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갈마바람: 가을장마가 질 때 부는 바람.

늦마바람: 늦장마가 질 때 부는 바람.

'가을장마'나 '늦장마'는 드는 시기가 서로 비슷하며, 그 시기에 계절풍인 '서남풍' 혹은 '남서풍'이
분다는 것을 고려하면, '갈마'를 '가을장마'로 분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갈마바람'의 '갈마'를 '가을장마'로 분석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갈마'가 '가을장마'의 뜻으로
쓰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마바람'과 '늦마바람'의 말맛을 살려 다음
과 같이 뜻풀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갈마바람 [명]

① 가을장마가 질 때 부는 바람.

② 뱃사람들의 말로, '서남풍'을 이르는 말.

[갈+마+바람]

늦마바람 [명]

① 늦장마가 질 때 부는 바람.

② =갈마바람.

[늦--+마+바람]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겨레말큰사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남녘말 북녘말

‘풀소’와 ‘풋소’

고대영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철에 따라 자연 풍광과 삶의 모습이 다채롭게 옷을 갈아 입는다. 그런데 요새 환경 오염 탓인지 갈수록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만 길어지는 듯하다. 이제 봄인가 하여 봄별을 즐기려고 하면 어느새 여름 별에 까맣게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만다.

이렇게 매년 봄이 짧아지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계절이 주는 느낌 하면 역시 봄의 생동감이 그중 백미가 아닐까 싶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보드랍게 녹고 차갑게 닫혀 있던 하늘이 봄별에 따스하게 열리며 오전 오후가 다르게 만물에 생기가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봄의 모습 중 이제 찾아보기 힘들 장면이 바로 소가 논밭을 힘차게 갈아엎는 모습이 아닐까. 이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임과 동시에 인간과 소의 에너지가 자연의 생기와 호응하며 새로운 생명을 일궈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단지 목가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농경문화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밑천이자 동반자였다. 그런 까닭에 우리 말에도 소와 관련된 많은 어휘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중 남과 북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를 몇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	북
풀소	풋소
겨릿소	거리소
안소	웨나소
마라소	마라소, 마나소

‘풀소’와 ‘풋소’는 남과 북의 표기 차이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풀소’와 ‘풋소’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어휘이다. 남에서 쓰는 ‘풀소’는 ‘풀[草]+ㅍ+소’에서 온 말로 ‘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를 이른다. 끝소리로 ‘ㄹ’을 가진 말이 다른 말과 어울려 쓰일 때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ㄷ’으로 적기에 ‘풀소’라고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반질고리, 사흘날, 숭가락 등) 한편 북의 ‘풋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일을 해 보지 못한 어린 소’를 이른다. 이때 ‘풋소’는 ‘풋감, 풋고추, 풋과일, 풋김치’ 등의 어휘에서 볼 수 있는 접사 ‘풋-’과 ‘소’가 결합한 말이다.

‘겨릿소, 거리소’는 모두 ‘겨리를 끄는 소’를 의미하는 같은 말이나 사이시옷의 표기 방식에서 남과 북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겨리를 끄는 소 중에서 왼쪽에 매는 소를 ‘안소’라 하고, 오른쪽에 매는 소를 ‘마라소’라고 이른다. 그런데 북에서는 남의 ‘안소’와 같은 말로 ‘웨나소’만 사전에 올라와 있으며, ‘마라소’와 같은말로 ‘마나소’를 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차이를 보인다.

‘풀소, 풋소’, ‘거리소, 겨릿소’, ‘안소, 웨나소’, ‘마라소, 마나소’ 등 이제는 이런 글에서나 사전 밖으로 나오는 어휘들이지만 여전히 잊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이런 말들을 잃으면 이와 관련된 감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하릴없는 걱정을 해 본다.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기고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기고

겨레말큰사전
청년 직장 체험의 의미

정희창 / 동덕여대 국문과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 방학에 직장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추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남북의 언어 차이를 다루다가 학생들에게 <겨레말큰사전>을 소개했더니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남북이 함께 무엇을 한다고 하면 개성 공단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금강산 관광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전을 함께 만드는지는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남북이 사전을 같이 만들다니, 너무나 낭만적이라는 대답이었다. 낭만적이라는 말이 의외여서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멋있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말들을 칠판에 적어 내려갔다. 좁스럽지 않다는 것,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것,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 마치 사전의 뜻풀이를 적어 가듯 머릿속에 단어들이 쏟아져 내렸다.

몇 년 전,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내리는 자리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쏟아져 내린 단어들은 무척 당혹스럽고 참담한 것들이었다. <겨레말큰사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사전을 누가, 얼마나 이용는지, 왜 굳이 정책 효과도 높아 보이지 않는 사전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 하는지에 대한 날이 선 질문과 평가가 가득했다. 빛으로 번득이는 날 사이에 낭만이나 멋 따위는 아예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 사전과 동일한 가치를 연결할 줄 모르는 눈에는 <겨레말큰사전>은 낭만스럽지도 멋있지도 않은 쓸모를 알 수 없는 사전일 뿐이었다.

그 날의 날카로운 기억은 이후에도 잘 잊히질 않았다. 그런데 학생들과의 대화 이후로 나는 그날의 어두운 마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내게 알려 주었듯이 사전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멋있고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젊은 시절에 10년이 넘도록 사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나는 내가 했던 것을 허드렛일로 기억할 뿐 그 허드렛일이 원석을 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셈이었다.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국어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국어가 왜 중요한가요? 친구들이 저 보고 왜 국문과를 다니내요? 그럴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준다. 우리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이라는 말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말로 보여 줄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할지는 내가 걸어온 자취인 역사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 언어와 역사가 삶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이용자의 수도, 요란한 정책적 효과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사전을 만드는 일은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심스러운 일이다.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 사전은 그래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어 버린다. 내가 잘 쓰지 않는, 모르는 말을 잔뜩 모아 놓은 단어장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누구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느끼는 일, 영화를 보고 남몰래 눈물을 닦는 일, 미술관에서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일, 박물관에서 옛날의 도자기를 보고 감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숫자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학생들이 방학에 <겨레말큰사전> 체험을 하고 나서 어쩌면 사전 만드는 일이 그리 멋지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전을 만드는 일이 이토록 수고로운지 몰랐다면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이 왜 필요한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전을 만드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고 <겨레말큰사전>은 그 멋진 일에 남북의 언어 통일이라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기고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겨레말큰사전> 편찬 기간 연장’ 개정 법률안 상임위 통과

지난 4월 24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기간을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까지 5년 연장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하 사업회법)’ 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앞서 2007년 4월 ‘사업회법’을 제정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스무 차례의 남북 공동 편찬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 등 30여 만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여 남북 공동 집필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9년 이후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중단되어 ‘사업회법’의 유효기한인 2014년 4월까지 사전을 편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회법’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겨레말큰사전>을 끝까지 편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및 해외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을 종합하여, 민족어 유산을 보존하고 분단 이후 심화된 미질화 해소와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